

맑고 깨끗하게! 안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롯데칠성음료(주) 안성공장

녹색 투명한 병에 새하얀 거품이 '몽글몽글' 맺힌 시원한 사이다가 생각나는 요즘 날씨이다. 어렸을 적 소풍갈 때면 꼭 챙겨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밥과 함께 녹색병에 담긴 사이다였다. 목을 '톡' 쏘는 그 아찔한 맛의 추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이번 호에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를 찾았다.

■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춘 롯데칠성음료(주) 안성공장

롯데칠성음료(주)는 우리나라 청량음료 산업이 첫 걸음을 시작하던 1950년, '칠성사이다'를 시작으로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꾸준히 개발, 공급하고 있는 국민음료기업이다. 반세기가 넘는 전통의 롯데칠성음료(주)는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경쟁 환경에서 앞으로도 깨끗하게 국내 음



료시장을 지켜나가며, 세계적인 초우량 종합음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롯데칠성음료(주)의 7번째로 완공된 안성공장은 2000년 12월에 최신의 자동화 설비를 도입, 탄산음료와 주스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모든 공정에 전자동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더욱 맛있는 음료를 만들기 위해 170여명의 근로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자율적인 안전활동 강화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음료를 만들고 있는 이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생'이다. 따라서 모든 작업현장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취지 하에 시작된 것이 청소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의 작업장 건설이다. 하지만 단순히 작업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실시하는 것이 바로 점검활동이다. '자율적인 안전활동 강화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란 슬로건을 바탕으로 경영자는 물론 근로자 전원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 환경, 위생, 안전 지킴이 5S점검활동

2004년부터 시작된 5S점검활동은 이곳에서 가장 중점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활동이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의 기본 개념 위에 안전점검을 결합하여 롯데칠성만의 5S점검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 5S점검활동은 관리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 부서와 직위에 관계 없이 3명이 1조가 되어 매일 지정된 구획을 순회하며 환경, 위생,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요소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검활동을 통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필요한 위험요소가 발굴되면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즉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설비개선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개선할 위험요소라면 매월 1회 실시되고 있는 안전관리 소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와 개선 계획, 실행절차에 대해 논의한 다음 개선되어 지고 있다. 또한 이 안전관리 소위원회란 기구를 통하여 5S점검활동에서 발굴된 위험요소의 제거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 보건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자와 현장작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과 토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 위험요소 극복을 위한 안전대책


이곳 안성공장에는 모든 공정에 있어 컨베이어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많다. 컨베이어는 대량생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설비로, 입공에서부터 제품 출하단계까지 모든 제품의 운송이 컨베이어를 타고 이동된다. 컨베이어로 인한 위험요소는 빠른 속도에 병이 넘어 지거나 깨질 우려가 있어 근로자들이 절상될 수 있고, 회전체에 의한 협착과 끼임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의 극복은 컨베이어 시설의 구간별 센서를 이용하여 비상시 바로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가이드를 설치하여 병이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된 병



을 검사하는 검병실의 경우 파병이나 다른 제품의 병을 선별해 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 파병이나 금이 간 병이 섞여 있는 경우 절상위험이 매우 높다. 이러한 환경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검병실 경우에 한하여 소단위 무재해게시판을 별도로 설치하고, 무재해 달성시 포상을 통하여 직원들 간의 일체감 조성 및 안전의식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의 구축을 위한 위험성평가기법의 도입

안성공장에서는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의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각 제품별 공정에 따른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해 나가는 위험성평가기법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이를 위한 별도의 T.F.T를 구성하고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해 교육과 타사업장 견학을 계획하고 있다.

칠성사이다 광고에서 나오는 ‘이 땅을 지키는 맑고 깨끗함’이란 말처럼 끊임 없는 안전활동에 대한 연구와 실천으로 맑고 깨끗한 작업장,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 건설로 무재해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임재근 기자〉